

초등학교 고학년의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곽미선¹ · 김영화² · 권선아³ · 이수영⁴

¹경기대학교 조교수, ²서울교육대학교 조교수, ³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 ⁴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목적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진로발달이론 중 하나인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을 적용하여 초등학생 진로발달의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인식한 그릿(Grit)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방법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416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SPSS PROCESS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그릿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와는 정적 관계를, 진로장벽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그릿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은 정적인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에서 강조한 사회인지변인인 자기효능감과 근접맥락변인인 진로장벽의 매개효과가 지지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발달과정에서도 SCCT 매커니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초등학교 고학년, 그릿, 진로장벽, 진로성숙, 자기효능감, 사회인지진로이론

논문접수: 2021년 7월 7일, 논문심사: 2021년 9월 2일, 게재승인: 2021년 9월 23일

Corresponding to 이수영, sylee@snu.ac.kr

1. 서론

아동기는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함께 전생애 진로발달과정의 밑바탕이 되는 태도, 흥미, 동기, 가치관 등이 형성되는 시기이다(Hartung, Porfeli, & Vondracek, 2008). 생애주기에 따른 진로발달과정을 제시한 이론가들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들은 자신의 욕구나 희망을 일과 직업에 관한 생각으로 연결해나가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장래희망이나 미래의 목표 등을 탐색하기 시작한다(Super, 1980). 따라서 아동기에 이루어져야 할 주요 진로발달과업으로는 자기이해,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계획성 및 독립심 발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진로발달과업에 대한 준

비도를 진로성숙도라 일컫는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8; 정익중, 임진영, 황매향, 2011). 진로발달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학령기 아동들의 진로성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진로교육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초등학생들의 진로성숙과 관련된 이론적 설명이나 개념에 대한 탐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초등학생 대상 진로교육 관련 논문 179편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김영한, 강두봉, 이승민(2017)에 의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종속변인은 진로성숙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는 진로성숙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그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로 편중되어 있어 다른 모집단(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에 비해 진로성숙과 관련 심리적 구인 간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이론적 모형의 발달이 없다면 특정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성숙에 적용 가능한 이론적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과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진로이론 중 하나인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 Lent, Brown, & Hackett, 2000; Lent & Brown, 2013)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성숙과 연관된 주요 심리적 구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국내의 청소년, 대학생, 성인들 대상의 진로 연구에 꾸준히 적용되어 왔으나(우예영, 유애영, 2020),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인지진로이론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기의 진로발달과업은 후기 청소년 또는 대학생·성인의 진로문제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성숙도를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적절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소개된 사회인지진로이론 모형인 진로 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Lent & Brown, 2013)에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적인 진로행동의 중요성을 제안하며 적응적 진로행동의 개인차를 불러오는 성격적 특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된 주요 성격적 변인으로 그릿(Grit)에 주목하였다. 그릿이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인내심과 열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 등 긍정적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성격적 특성 중 하나이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그릿은 진로목표와 관련된 긍정적 태도, 계획성, 노력 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김창규, 김재호, 2020) 본 연구에서는 그릿과 진로성숙의 관련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의 성향과 진로발달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 등 사회인지적(Social cognitive) 변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뜻한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특성 및 경험을 해석하여 적응적 진로행동을 추구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여겨진다. 또한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데, 성역할 사회화,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차별 등을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변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맥락적 변인은 진로이론 안에서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는데, 진로장벽이란 성차별, 인종차별, 사회적지지 부족, 자신감 부족, 경제적 문제 등 진로발달 과정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를 지칭한다(Kim, & O'Brien, 2018; Swanson, & Woitke, 1997). 이러한 SCCT의 주요 이론적 가정을 종합하자면, 개인의 특성(그릿과 같은 성격적 특성)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자기효능감이나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적용하여 이들이 인식한 그릿, 진로성숙,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릿과 같은 성격적 특성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심리적 변인을 고려할 때 비교적 단기간의 교육적 개입으로 변화가능한 사회인지적 변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유용한 이론적·실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Brown & Lent, 2019).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고학년의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고학년의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a. 초등학교 고학년의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b. 초등학교 고학년의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초등학교 고학년의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이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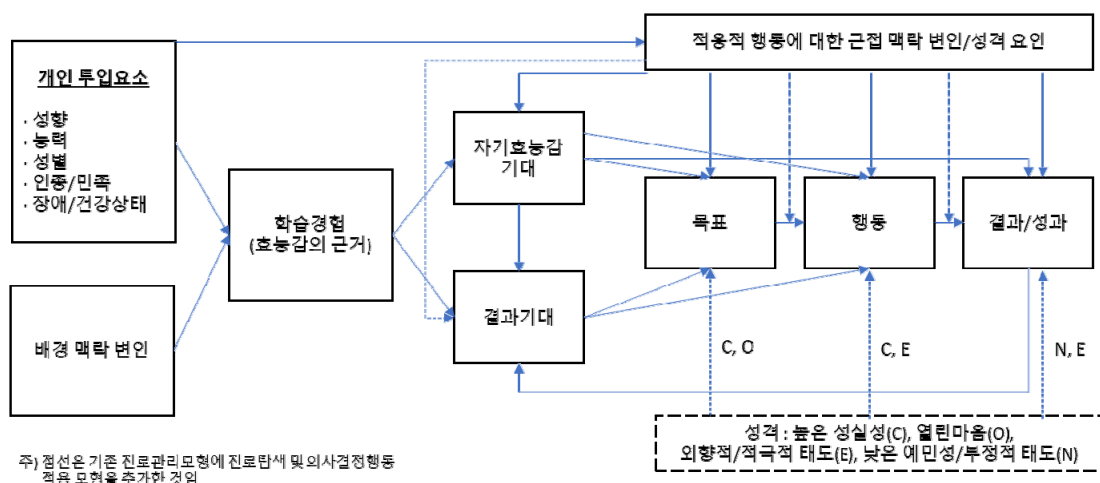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인지진로이론

Lent와 Brown 등에 의해 발달된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이하 SCCT)은 다양한 진로 관련 태도, 행동, 결과를 설명하는 종합적인 이론적 모형이다(Lent & Brown, 2013; Lent, Brown, & Hackett, 1994). 1990년대 처음 소개된 이후로, SCCT는 다양한 이론적 모형을 소개해왔는데 대표적으로 흥미 발달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 직업만족 모형 등이 있다(Brown & Lent, 2019). 특히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Lent & Brown, 2013)은 진로선택의 내용적 측면(“무엇을 선택하는가”)보다는 과정적 측면(“어떻게 선택하는가”)에 주목하여 적응적 진로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을 중심으로 SCCT의 주요 구성요소와 가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첫째는 진로 관련 결과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이다. 개인적 성향(기질, 성격 등), 능력, 성별 등 개인 투입요소는 초기 학습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작용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진로 성과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SCCT에서는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을 진로발달 과정에 적용하여, 특정 경험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에 대한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s)와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낼 수 있다는 확신인 효능기대(self-efficacy expectations) 등 사회인지적 변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더라도 효능기대, 즉 자기효능감이 없다면 행동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 결과기대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Lent와 동료들은 개인의 진로발달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환경적 방해 또는 지지를 적응적



자료: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568

[그림 1]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환경적 맥락으로 제시하고 있다(Lent, Brwon, & Hackett, 2000). 사회환경적 요인은 학습경험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배경맥락변인(background contextual affordances)과 적응적 진로행동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근접맥락변인(proximal icontextual affordances)으로 구분된다. SCCT에서는 진로장벽을 개인의 진로발달이나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근접맥락적 변인으로 소개하고 있다(Lent & Brown, 2013). 이처럼 SCCT에서 맥락적 변인이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 투입요소(예, 타고난 성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 사람이 처한 사회환경적 맥락 안에서 개인적 투입요소가 적응적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과정(예, 성차별로 인한 자신감 하락)에는 다양한 교육적·상담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주요 변인들의 개념과 이들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SCCT(Lent & Brown, 2013)를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적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속한 학령기 아동기의 진로성숙도를 통해 적응적 진로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며, 선택할 수 있는 준비 정도를 의미한다(류상희, 2015). 진로성숙은 전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발달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시기별 진로성숙의 발달 양상을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Hartung, Porfeli, & Vondracek, 2005). 아동청소년기 진로성숙의 발달은 다양한 개인, 가정, 환경적 요소와 상호작용한다(정미나, 노지은, 2016). 다수의 연구에서 연령과 진로성숙도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김재호, 정철영, 2006),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 학년급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임효진, 한지은, 김정수, 전해연, 2016; 이정희, 2009). 성별의 차이도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성숙 수준이 높다고 보고된 연구도 있으나(신은영, 김누리,

2004; 이정희, 2009), 남학생이 더 높다는 연구(김재호, 정철영, 2006),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조아미, 2002) 등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아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종합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진로성숙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심리적 변인으로는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이 있으며(유준상, 서우석, 2013)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성향의 직접적·간접적 역할을 강조한 SCCT에 따라 진로성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 중 하나로 그릿(Grit)에 주목하였다. 그릿은 장기적 목표를 위한 인내, 열정을 뜻한다(Duckworth & Quinn, 2009). 국내에는 그릿이 투지, 끈기, 기개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본래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영어 원어 그대로 그릿을 사용하는 추세이다(임효진, 2017). 그릿은 목표 달성 또는 성취와 관련된 비인지적 특성 중 하나로 어떠한 상황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흥미를 유지하거나, 긴 시간에 걸쳐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를 나타낸다(Duckworth & Quinn, 2009). 그릿이 학생의 긍정적 발달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지표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최근 진로 연구 영역에서도 그릿과 진로 관련 구인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수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그릿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성숙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희, 송선희, 2020; 김창규, 김재호, 2020).

이처럼 그릿은 진로성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SCCT의 주요 메커니즘을 통해 본다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관련성을 보일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CCT는 결과기대, 자기효능감과 같은 사회인지적 변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간의 높은 효과크기가 나타났다는 메타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유준상, 서우석, 2009), 여러 사회인

지적 변인 중 자기효능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SCCT 안에서는 적응적 진로행동을 촉진하거나, 진로목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Lent & Brown, 2013).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이나 대처효능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을 가정하여 다양한 상황·과제에 일반화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에 주목하였다(Scholz, Doña, Sud, & Schwarzer, 2002). 단독중 고위험군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실증 연구에서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김은희, 송선희, 2020).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SCCT의 이론적 모형에 따라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진로장벽이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진로장벽이란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이거나 환경적인 사건 또는 조건들을(Swanson & Woitke, 1997) 또는 직업이나 진로 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뜻한다. 진로장벽의 분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신감의 부족, 낮은 동기 등이 내적요인으로 구분되며, 교육 기회의 부족, 차별, 경제적 문제 등은 외적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Crites, 1969).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는 여성의 진로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로 출발하여, 다양한 소수자 또는 청소년의 진로장벽 연구로 확대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덕수(2007)의 연구에서는 남·녀 초등학교 6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장벽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6학년이 3학년보다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다문화 초등학교생들의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명형철, 2018).

진로장벽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느끼는 정

도와 대처하는 양식도 달라지는데(London, 1997),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진로장벽의 영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로장벽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이라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개인이 어떻게 장벽을 지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고복순, 2011). 그러므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장기목표에 몰입하는 성향(그릿)과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신념(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 인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곧 다시 적응적 진로행동의 발달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이론과 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릿과 진로성숙도 간에 관계를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즉, 그릿을 높게 보고하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보이며, 진로장벽에 대해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경향성이 진로탐색, 계획, 결정 활동에 대한 높은 준비도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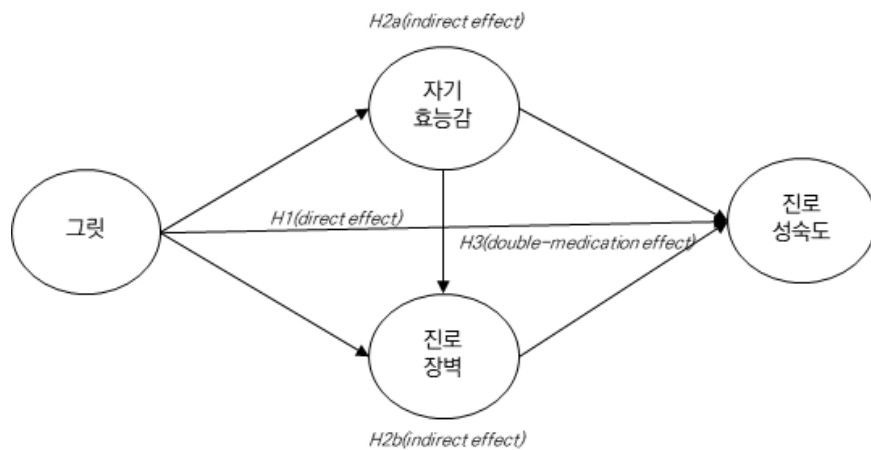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인 지진로이론(SCCT)을 적용하여 이들이 인식한 그릿, 진로성숙,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재직 중인 교사 20명에게 설문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협조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 설문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해당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부터 6학년 학생 20명(학년당



[그림 2] 연구모형

배정인원 없음)에게 설문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아동 대상 윤리적 연구(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 사전 동의를 얻은 후 희망하는 학생만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참여 학생이 설문 중단을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 참여 학생들의 개인정보 및 응답한 결과는 비밀로 유지되며 연구 후 삭제될 것임을 공지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에 협조한 교사에게 보상이 지급되었다. 201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주간 총 학생 418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성별 또는 학년을 기재하지 않은 불성실 응답치를 제외한 416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3. 측정 도구 및 분석 방법

가. 그릿 척도

그릿은 Duckworth와 Quinn(2009)의 Short Grit Scale (Grit-S)을 김희명, 황매향(2015)이 그의 허락을 받아

한국어로 번역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실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김희명, 황매향(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값은 .71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값은 .638이었다(<표 2> 참조).

나. 진로성숙도 척도

진로성숙 도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정의중, 임진영, 황매향(2011)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진로성숙 도구는 계획성, 자기이해, 일에 대한 태도, 독립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개의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정의중, 임진영, 황매향(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값은 .80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값은 하위구인별 .768~.823이었으며, 전체 신뢰도값은 .857으로 확인되었다(<표 2> 참조).

다.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은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도구를 김아영(1997)과 심계화(2004)가 초등학생의 발달단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학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4학년	56(49.56%)	57(50.44%)	113(100.0%)
5학년	62(50.82%)	60(49.18%)	122(100.0%)
6학년	86(47.51%)	95(52.49%)	181(100.0%)
전체	204(49.04%)	212(50.96%)	416(100.0%)

계에 맞게 재구성하고, 김재호, 정철영(2006)이 접치는 문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쉬운 것으로 대체하여 재구성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개의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김재호, 정철영(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값은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값은 하위구인별 .744~.800이었으며, 전체 신뢰도값은 .898로 확인되었다(<표 2> 참조).

라. 진로장벽 척도

진로장벽 도구는 성역할 갈등에 대한 인식이 포함된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2005)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2개의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성역할 갈등의 문항은 남학생용과 여학생용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값은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값은 하위구인별 .668~.805

였으며, 전체 신뢰도값은 .943으로 확인되었다(<표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검사도구의 신뢰도 검증과 변인들의 정규성,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 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SPSS 23.0와 SPSS AMOS 26.0을 활용하였다. 또한, 또한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위해 PROCESS v3.5 by Andrew F. Hayes를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초분석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구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 = 0.823$, $df = 100$, $p = .000$; RMSEA = 0.133[lower: .124, upper: .141]; SRMR = 0.046; CFI = 0.843; TLI = 0.812). 또한, 주요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변인	하위요인	문항수	질문문항 예시	요인 신뢰도	신뢰도
그릿	-	8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다.	-	.638
진로 성숙도	계획성	7	내가 남보다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본곤 한다	.824	.872
	자기이해	6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781	
	일에 대한 태도	5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직업이든 상관없다	.787	
	독립심	4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이 내 직업을 정해주기를 원한다	.791	
자기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5	나는 계획을 잘 세운다	.754	.912
	자신감	9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다	.812	
	과제 난이도 선호도	6	어렵거나 새로운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711	
진로 장벽	자기이해의 부족	4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668	.942
	자신감의 부족	11	나는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부족하다.	.808	
	성역할갈등 및 성차별	8	나는 결혼을 하면 직업을 갖지 않을 것이다.	.639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6	앞으로 내 직업선택은 부모님의 반대나 참견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753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4	나중에 내가 직업이 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	.737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4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모른다.	.801	
	경제적 어려움	5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780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여 자료의 정규성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측정변수들의 왜도는 절대값 2이하, 첨도 7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였다. 이어서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는 그릿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577, p=.000$). 이는 그릿 수준이 높을 때 진로성숙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그릿은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과 정적상관($r=.687, p=.000$), 진로장벽과는 부적상관($r=-.475, p=.000$)을 보였다. 그리고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는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과 정적상관($r=.593, p=.000$), 진로장벽과는 부적상관($r=-.561, p=.000$)을 보였으며, 두 매개변인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r=-.522, p=.000$)을 보였다.

2.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각 표준화 경로계수는 <표 4>와 [그림 3]과 같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그릿과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로 가는 경로($\beta=.237,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자기효능감($\beta=.829, p=.000$), 진로장벽($\beta=-.294, p=.000$) 모두 그릿과 통계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두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경로($\beta=-.393, p=.000$)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로 가는 경로($\beta=.200, p=.000$) 진로장벽이 가는 경로($\beta=-.221, p=.000$)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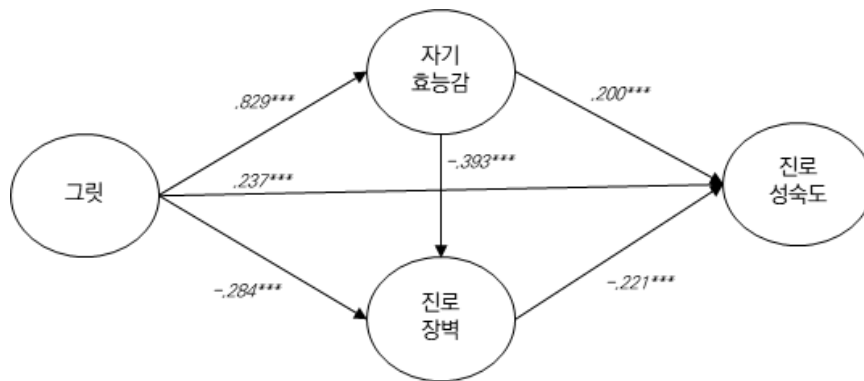
이 연구의 연구문제와 관련된 주요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총효과는 .537이었으며, 직접효과는 .237, 간접효과는 .300이었다. 3가지 매개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무선표집된 5,000개의 표본을 모수추정한 후 95%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릿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그릿→자기효능감→진로장벽)의 간접효과는 .166이었으며 .229~.238로 신뢰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장벽(그릿→진로장벽→진로성숙도)의 간접효과는 .063이었으며 .099~.103

<표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N=416)

측정변인	그릿	진로성숙도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1. 그릿	1			
2. 진로성숙도	.577***	1		
3. 자기효능감	.687***	.593***	1	
4. 진로장벽	-.475***	-.561***	-.522***	1
평균	3.76	4.13	3.45	1.94
표준편차	0.469	0.436	0.565	0.601
왜도	0.394	-0.203	0.395	0.338
첨도	-0.098	-0.345	-0.253	-0.476

<표 4> 주요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검증결과

직접효과	β	SE	95% 신뢰구간		Hypothesis testing
			LLCI	ULCI	
그릿 → 진로성숙도	.237	.186	.145	.329	accepted
그릿 → 자기효능감	.829	.043	.744	.914	accepted
그릿 → 진로장벽	-.284	.073	-.428	-.140	accepted
자기효능감 → 진로장벽	-.393	.061	-.512	-.274	accepted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도	.200	.040	.121	.279	accepted
진로장벽 → 진로성숙도	-.221	.031	-.282	-.160	accepted



[그림 3] 연구모형 결과

<표 5> 진로성숙도에 대한 간접효과 검증결과

간접효과	β	SE	95% 신뢰구간		Hypothesis testing
			LLCI	ULCI	
그릿 → 자기효능감 → 진로장벽	.166	.035	.229	.238	accepted
그릿 → 진로장벽 → 진로성숙도	.063	.018	.099	.103	accepted
그릿 → 자기효능감 → 진로장벽 → 진로성숙도	.072	.016	.044	.105	accepted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끝으로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이중매개(그릿→자기효능감→진로장벽→진로성숙도)의 간접효과는 .072이었으며 .044~.1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적용하여 이들이 인식한 그릿, 진로성숙,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개인적 성향의 역할을 강조한 SCCT 이론에 따라 진로성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개인 성격특성으로 그릿에 주목하였었다. 연구결과 그릿은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과는 정적인 관계, 진로장벽과는 부적인 관계로 확인되었다. 이는 그릿이 학생의 긍정적인 진로발달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김은희, 송선희, 2020; 김창규, 김재호, 2020)를 지지하는 결과였으며, 이내심과 장기목표에 몰입하는 능력인 그릿을 높게 인식한 경우, 상황과 맥락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인식인 진로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의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은 정적인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Lent & Brown(2013)의 SCCT 모형을 지지하였다는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 SCCT는 결과기대, 자기효능감과 같은 사회인지적 변인들을 중요시하는 모형으로, 개인의 성향은 긍정적인 사회인지적 과정을 거치는 경우 진로발달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대한 메타연구(유준상, 서우석, 2013)는 다른 변인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높은 효과크기를 구명하면서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언급했었다. 또한 내적준비도 부족, 성차별,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이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인식하는 진로장벽 또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의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은 정적인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하였듯이 그릿을 높게 보고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확신을 갖게 되고, 이들은 자신 앞에 놓인 문제 상황, 장벽을 낮게 지각하여 진로탐색, 계획, 결정 활동에 대한 높은 준비도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개효과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166)가 진로장벽의 매개효과(.063)보다 더 컸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아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하는 이중매개효과(.072)는 진로장벽만 매개할 때에 비해 .009 높아 자기효능감이 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Lent & Brown(2013)의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에서 강조한 사회인지적 변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이다. 특히 초등학생이 속한 아동기 진로발달과정에서도 사회인지적 요소가 긍정적인 진로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인지적 변인인 자기효능감이나 근접맥락적 변인인 진로장벽과 같은 변인은 장기간에 걸쳐 변하는 개인의 성격적, 성향적 기질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교육적 개입을 통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다양한 초등학교 고학년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에 따른 진로발달과정 중 학령기 아동인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발달 과정을 보는데 의의를 두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중요시되는 진로성숙도를 중심으로 주요 심리 구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이 이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진로발달과정을 거처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더욱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연구의 대다수가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넘어, Lent & Brown(2013)의 SCCT를 적용하여 초등학생의 진로발달 매커니즘을 알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소개된 사회인지모형에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적 진로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열정을 발휘하는 그릿이 진로발달과정의 중요한 개인 특성 변인임을 확인하였다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 더욱이 그릿은 자기효능감과는 정적, 진로장벽과는 부적인 관계로 확인되어 SCCT에서 강조한 사회인지적 변인과 맥락적 변인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개인특성이 사회인지적 요소 및 맥락적 변인을 거쳐 진로발달에 진입하는 주요 선행변인이 될 수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흥미와 적성을 찾는 활동과 함께 장기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인내와 열정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 그 과정 안에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얻게 되는 자기효능감, 이러한 성취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놓일 여러 장애물을 극복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연습 또한 충분히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 설계를 적용하여 연구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으므로 연구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 종단연구 등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기보고식 설문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유추하였으므로 학생들의 객관적인 그릿,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학부모의 관찰 등 다른 측정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그릿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그릿을 안정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안의 탐색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SCCT를 국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에게 적용하는 초기 연구로서 SCCT 모형 중 일부 경로의 타당성을 탐색하였으나, SCCT의 주요 변인(예: 결과기대)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성격적 특성으로 그릿에 주목하였으나 해외 SCCT 연구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성격 5요인, 주도적 성격(proactive personality)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 변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성장발달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4학년과 6학년의 학년 간 발달의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구한다면 학생들의 성장발달수준에 적합한 진로교육 및 상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복순 (2011). 중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태도 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8).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아영,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통계학술대회 논문집**, 51-74.
- 김영환, 강두봉, 이승민 (2017). 초등 진로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초등교육연구**, 30(2), 1-26.
- 김은희, 송선희 (2020). 그릿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난독증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45-371.
- 김재호, 정철영 (2006). 초등학생의 가족체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9(4), 119-137.
- 김창규, 김재호 (2020). 초등학생의 성장 마인드셋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945-968.
-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63-74.
- 류상희 (2015). 실과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실과교육연구**, 21(4), 41-56.
- 명형철 (2018). 다문화초등학생의 진로장벽인식과 이중문화적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2, 105-132.
- 신은영, 김누리 (2004). 청소년기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탐색. **아동교육**, 13(2), 185-199.
- 심계화 (2004).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습풍토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예영, 유애영 (2020). 진로문제 관련 심리적 변인 연구 동향 분석: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8(2), 1-19.
- 유준상, 서우석 (2009). 진로성숙과 심리적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26(3), 165-183.
- 이정희 (2009). 초등학생용 진로성숙 검사 개발과 진로성숙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효진 (2017). 그릿의 최근 연구동향과 재개념화의 필요성. **교육심리연구**, 31(4), 663-681.
- 임효진, 한지은, 김정수, 선혜연 (2016). 청소년의 진로경험 및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의 중단변화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 **상담학연구**, 17(5), 289-306.
- 정미나, 노지은 (2016).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 정익중, 임진영, 황매향 (2011).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 개발. **초등교육연구**, 24(3), 169-194.
- 조아미 (2002).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4(1), 81-108.
- 한덕수 (2007). 부모지지와 진로장벽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의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2), 125-159.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rown, S. D., & Lent, R. W. (2019).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t 25: Progress in Studying the Domain Satisfaction and Career Self-Management Model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7(4), 563-578.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Duckworth, A., & Quinn, P.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 166-174.
-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3), 385-419.
-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8). Career adaptability in childhood.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7(1), 63-74.
-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568.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6-49.
-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Scholz, U., Doña, B. G., Sud, S., & Schwarzer, R. (2002). Is general self-efficacy a universal construct? Psychometric findings from 25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8(3), 242-251.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4), 443-462.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areer maturity of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Misun Kwak¹, Young Hwa Kim², Suna Kyun³, Soo-Young Lee⁴

¹Assistant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³Assistant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⁴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variables related to career maturity, which is used as a representative indicator of career development for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 one of the representative career development theories. Specificall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was verif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areer maturity perceived by the upper grade students of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Methods To do this, data was collected from 416 students in the 4th to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was analyzed using AMOS and SPSS PROCESS.

Results First, Grit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an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career barriers. Second,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areer maturity. Third,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showed a static doubl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areer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nclusio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which are social cognitive variables emphasized in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 It is also significant that the SCCT mechanism is applied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of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 words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 grit, career barrier, career maturity, self-efficacy,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